

분단이라는 질병을 치유하는 플랫폼 되기를

평화와 통일은 서로 엇비슷하면서도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지내자는 취지는 같지만, ‘함께’ ‘더불어’ 지내는 방식에서 차이를 지닙니다. 평화는, 쉽게 말해, 어울림입니다. 통일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영어 낱말로 표현하자면, 평화는 unity를, 통일은 uniformity를 지향합니다. 우리 귀에 친숙한 한자어를 인용하자면, 평화는 화이부동(和而不同)에, 통일은 동이불화(同而不和)에 가깝습니다. 평화는 군자(君子)의 길이고, 통일은 소인(小人)의 길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어울림(평화)이 ‘하나 되기’(통일)보다, 그 비중이나 역량에서, 더 큰 그릇이라는 소리입니다. 평화(어울림)라는 그릇 속에 통일(하나 되기)이라는 열매를 담아보자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펴내는 『평화로 통일을 논하다』는 평화드림포럼이 2021년 12주간 동안 12명의 학자들과 함께 공(功) 들였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입

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그 첫 작업을 세간에 내놓는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간에 신고하는 여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신고식(?)이 아닙니다. 평화드림포럼이 2021년 봄과 여름에 12명의 학자들과 사색했던 ‘평화로 통일을 논하기’가 평화드림포럼의 사색을 넘어 ‘평화로 통일하기 시민운동’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었다는 알림입니다.

‘평화로 통일을 논하기’ 프로젝트에 함께 했던 학자들은 저마다 ‘힘으로 이루는 통일’이 아닌, ‘평화로 이루는 통일’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반도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기늠하는 눈높이나 내일의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색의 폭과 깊이도 그 학자들이 터 잡은 신학, 사회학, 경제학, 선교학, 윤리학, 교회사, 구약학, 신약학, 여성신학 등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2021년 12주 동안 평화드림포럼이란 이름으로 함께 했던 학자들은 학문의 실천이란 지평선에서 서로 어울리고자 뜨겁게 노력하였습니다.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평화로 통일을 논하다』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드림포럼은 남북분단이라는 질병을 치유하는(!) 해석학적 상상력을 우리 사회에 처방하는 플랫폼(platform)이 되고자 합니다. 평화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평화 누리기가 얼마나 힘든 지를 새삼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평화 이루기가 무작정 어렵다고 느끼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정책이나 제도의 차원이 아닌 규범과 가치의 관점에서 누리도록 촉구하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오랜 과제인 통일의 지평선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적극 실천·실험·실습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한반도에,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세워지는

감격을 일구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드림포럼의 장(場)은 교회 안이기보다는 교회 밖입니다. 아니, 교회 밖이 아니라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드림포럼의 첫 나팔에 해당하는 “평화로 통일을 논하다” 프로젝트는 이 땅에,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에게 구현하려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일환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려는 운동의 한 자락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격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21).

왕대일 박사

하늘빛교회 담임, 평화드림포럼 이사, 24대 한국기독교교회회 회장